

■ S-109 ■

만성 C형 간염 환자에서 페그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치료 후 발생한 돌발성 난청 1예

부산보훈병원 소화기내과

*박건우, 조준호, 정민웅, 오송희, 박종익, 박세령, 박형열

서론: 현재 만성 C형 간염의 표준 치료로 널리 인정되는 페그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 요법의 부작용의 빈도와 종류는 기존의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에서 확인된 것들과 비슷하다. 치료받은 환자의 75%가 독감 유사 증상, 백혈구 감소증, 우울증, 화를 잘 냄, 집중과 기억장애, 시야 장애, 불면증, 청력장애, 이명, 갑상선 기능 저하 혹은 항진증, 오심, 구토, 피부 가려움, 체중 감소, 폐간질 섬유화, 탈모 등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경험한다. 저자들은 페그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48주 치료 종료 후 경험한 이명이 동반된 돌발성 난청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특이병력 없는 62세 여자환자가 2011년 7월 27일 HCV Genotype 1b (single type), HCV RNA 정량 8040000 IU/mL로 페그 인터페론 알파 2a 80 mcg 주 1회 피하주사, 리바비린 800 mg/day로 병합요법을 시작하였다. EVR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12주째(2011년 10월 10일) 시행한 HCV RNA 정량 1150 IU/mL로 감소소견 보였으며, 치료시작 5개월 후(2011년 12월 29일) HCV RNA 정성 검사에서 HCV는 15IU/mL 이하로 확인되었고, 전신 쇠약감 외 특이소견 없이 치료는 계속되었다. 이후 3개월마다 f/u하며 시행한 LFT, HCV RNA 정량 검사도 음성 소견을 보여 치료종결반응(ETR, End Treatment of Response)을 보였으며 12개월간(2011.07.27-2012.07.27)의 치료를 종결하였다. 하지만 치료 종료 6주 후부터 이명 및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 발생했으며 증상 지속되어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방문하였다. 2012.10.10 Head Temporal MRI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2012년 10월 9일 순음청력 검사상 좌측 귀에서 연속한 2개의 인접한 순음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역치 감소가 관찰되어 좌측 돌발성 난청 의증으로 이비인후과 입원하였다. 다른 원인을 배제한 후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합요법 이후 발생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prednisolone 40 mg로 치료시작해 3일 간격으로 단계적 감량 시행하며 감량하며 2주간 치료를 시행했다. 퇴원시 우측 기도청력 36dB, 좌측 기도청력 58dB로 검사상 약간의 호전만 보인 상태나 환자 만족도는 높은 상태로 외래에서 경과관찰 했으며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차츰 호전되어 1년 경과 후 청력 정상으로 호전되었다. 현재 만성 C형 간염 치료 후 발생한 돌발성 난청은 국외 10예, 국내 4예 보고 되었고,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인 청력소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만성 C형 간염으로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 시행 후 환자에서 발생한 가역적인 돌발성 난청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한다.

■ S-110 ■

B형간염 표면항원음성/표면항체양성인 DLBCL환자에서 항암치료 후 발생한 B형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1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박한민, 박지원, 강호석, 김성은, 강기주, 문성훈, 김종혁, 박충기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는 항암치료를 받는 림프종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 알려진 합병증 중 하나이다. 특히 림프종 치료에 이용되는 단클론성 항체(monoclonal antibody)인 rituximab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재활성화는 B형 간염 보균자에서 발생하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이 음성인 경우에도 드물게 항암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 후 재활성화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HBsAg 음성, anti-HBs 양성인 림프종 환자에서 항암치료 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예는 매우 드물다. 본 증례에서는 HBsAg 음성/ anti-HBs 양성인 58세 남자환자가 광범위큰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을 진단받고 6주기 R-CHOP항암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였으나, 항암치료 종료 후 196일째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발생하여 테노포비어(tenofovir) 치료 후 임상적 호전을 보인 1예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